

전주시,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연결 나선다

전주천·삼천 물길 정비 나선다

시, 홍수 침수피해 방지·재해 예방 위한 하도정비사업 추진

51.7km 자동차전용도로 구축 교통여건 개선

전주시는 외곽순환도로 51.7km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망을 분산시켜 외곽순환도로 총 51.7km 우아(색장동)에서 완주 신리까지 4.3km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 방안을 추진 계획을 27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 우아~완주 신리 구간(4.3km)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가 연결되면 전주 외곽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돼 교통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2026년 완공되면 9.9km 구간이 더 늘어나 47.4km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된다.

이에 시는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3.7km 구간도 기존 국도 17호선 대신 4.3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구축 교통 여건 개선은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 차량 정체 극심함을 풀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말 용진~우아 구간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연결되면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지난 6월 전라북도에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4.3km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하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계획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최근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향후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전북도, 지역정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배회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완성하면 전주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 및 전주시 인접 시·군간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전 북연구원, 지역정권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시는 외곽순환도로 51.7km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할 계획이다.

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는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전주천과 삼천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를 준설하고 지장수목을 제거하기로 했다.

시는 갈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홍수 침수피해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과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2억4900만 원이 투입되고, 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구간은 전주천(7248㎡) 백제교와 서신교 사이, 삼천(4730㎡) 효자교 상류 구간과 서문초등학교 앞 세

월교 인근 등이다. 시는 하도정비 중 발생한 퇴적토 등에 대해서는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상토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하도 정비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배회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퇴적토와 잡풀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에탄올 화로 화재 주의하세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가정용·캠핑용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 주의의 당부하고 나섰다.

에탄올 화로는 최근 가정용·캠핑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부족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2년(2020년 1월~22년 3월)간 전국 1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15명, 재산상 피해액은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화재 1건당 부상자 1명이 넘게 발생해 화재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화로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

의 주요 유형으로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 발생,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 발생,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발화로 화재 발생'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 커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할 것,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 자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의 깊게 사용 등이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비전대 학생 구급차 동승실습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구급차 동승실습'을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실습은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의 올바른 이해와 응급환자 처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전문 응급의료종사자를 양성하고자 마련됐

다. 이번 동승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효자, 서부, 교통, 노송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구급대 업무 이해 및 안전교육, 구급업무 사항의 이론교육과 동시에,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응급환자 이송 시 주의사항, 구급 기자재 사용법' 등 현장 활동 사항을 실습을 통해 익히게 된다. /김영태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 순창 대설 재해 현장 방문

유희동 기상청장이 최근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순창군 일대의 재해 현장을 27일 방문했다.

유 청장은 지난 23일 최심적설 63.7cm가 쌓이는 기록적인 대설이 내린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일원의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

를 겪은 지역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향후 위험기상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여 재해 지역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아영 기자

23년째 이어진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행

편지·지폐 다발·돼지저금통 총 7600만 5580원... 현재까지 8억8473만3690원 성금 전달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소녀가장에 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 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의 '천사의 선행'이 담긴 편지를 내용이다.

시에는 올해도 어김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사랑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얼굴 없는 천사' 그는 "성산교회 오르막길에 노란색 다슬어린이집 유치원 차 뒷바퀴에 상자를 두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27일 오전 중년남성의 목소리만 들려준 뒤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전주 서노송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A4용지 박스를 발견하고 소중히 박스안 내용을 살펴봤다. 그속엔 '편지 한통과 5만 원권 지폐 다발, 돼지저금통 1개'가 있었으며,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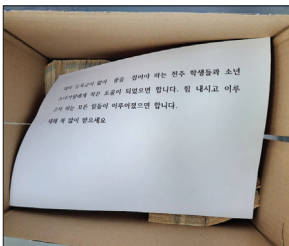


은 모두 7600만 5580원으로 확인이 됐다.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는 지금까지 23년째 총 24차례에 걸쳐 물려 성금을 보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 금액은 8억8473만3690원에 달하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성금은 사람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을 통해 58만 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중노2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사라져 불리게 된 이름으로써,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 남몰래 선행을 이어지고 있다.

선행으로 이어지는 '얼굴 없는 천사'의 행적은 전국 '얼굴 없는 천사'들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주변 6개동이 함께 천사축제를 개최해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1월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숨은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또 2015년 12월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오갔을 주민센터 주변에 기부 천사 횡터를 조성했으며, 옆 대로 '천사의 길', 인근 주변은 '천사마을'이란 이름을 붙였다.

2017년에는 천사의 길을 따라 천사 벽화를 그리며, 2018년 동 주민센터 입구에 천사기념관을 조성하고 2019년 천사의 거리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6578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노송동 저소득가정 초·중·고교 자녀 20명에게 해마다 천사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